

# “새만금, 재생에너지 종합 테스트베드 활용을”

###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 제시 재생에너지 설비 성능평가 등 연구·실증 중심지 육성해야

새만금 지구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종합 테스트베드(시험장·Test-Bed)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발간한 '전북 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이란 연구 보고서에서 "새만금은 미래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각종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 등을 위한 연구·실증 중심지로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새만금 일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됨으로써 전북의 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공유수면에 태양광 2.8GW 등 총 3.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새만금 외곽 말도에 1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전북의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 지구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주민과 공감대 형성 후 주민 참여형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춘 지역인재 양성·공급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에 위한 전북도 차원의 중

합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성 한국은행 전북본부 과장은 "전북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전해 육성하고 있지만,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지구가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소재 생산, 발전·저장, 유지·관리 서비스로 이어지는 에너지 가치사슬에서 중추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목포~제주 운항 '씨월드고속훼리' 일본 여행 거부운동 동참 이벤트 눈길 제주도 관광객에 차량·객실 할인 등 지원 행사

목포-제주 기점 항로를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주)가 일본여행 거부운동을 겨냥해 '나라사랑, 제주베틀 사랑' 이벤트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이사 회장 이혁영)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본 여행 거부로 대체 여행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높은 물가로 결정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제주도 교통운임을 할인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의 '나라사랑, 제주베틀길사랑' 이벤트는 국내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기간 씨월드고속훼리에서는 승용차량과 고급객실 할인 혜택을 주었다. 승

용차량 선적비용은 업계 최저가격으로 기존 운임대비 20% 할인이 제공된다. 주말요금 기준 항공권 왕복 운임이면 탁트인 바다전망을 즐길 수 있는 유럽형 크루즈 카페이션 이용(오전 9시, 오전 0시30분 선택)과 더불어 복잡한 렌트과정 없이 자가용으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 또 1만3665원으로 1264명이 승선할 수 있는 컨메리호(사진)의 고급객실(스위트룸, 패밀리룸)을 추가적으로 할인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77-3567)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세계의 다양한 소스 맛보고 체험하세요”

### 순창 '발효소스박람회' 10월 18일 개막...고추장 소스 요리도

세계의 다양한 소스를 맛보고 체험하는 2019 순창 세계발효소스박람회가 10월 18일부터 사흘간 순창군 고추장민속마을 장류특구에서 열린다. 지난해 박람회는 15만명이 방문했다. 올해 박람회는 제14회 순창 장류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린다. 행사는 세계 발효 소스 전시 체험, 장수 밥상 체험, 순창 전통주 품평회, 농장 체험, 소스 토크쇼, 어린이공연 등으로 꾸민다. 제16회 순창고추장 소스 요리 경연도 열린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군은 소스박람회 참가 업체를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소스박람회에 참가한 해외바이어와 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인프라이와 홍보 지원을 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는 지난해에 비해 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찾아주시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더 흥미진진한 박람회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제공>



2019 순창 세계발효소스박람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순창군 고추장민속마을 장류특구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박람회장에서 발효소스를 맛보고 있는 참가자들 모습. <순창군 제공>

## 도시재생 전문가 30명 배출 정읍시, 아카데미 수료식

정읍시가 도시재생 전문가 30명을 배출했다. 정읍시는 지난 12일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하고 이들과 도시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의 도시재생 대학과 도시학교, 리더양성 과정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심화 과정이다. 아카데미는 문화와 관광, 주거재생, 상가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와 사례, 워크숍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도왔다. 한편 정읍시는 원도심 4개 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항일의병 활동 최전구 선생 후손에 고창군, 독립유공자 증서·명패 전달

고창군은 광복절을 맞아 항일의병 활동을 한 최전구 선생의 후손을 찾아 명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고창군 보훈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3일 최전구 선생의 후손인 최우순씨댁을 찾아 독립유공자 증서 및 명패를 전달했다. <사진>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출신인 최전구 선생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상실되자 이듬해 최악현이 정읍 태인지역에서 일으킨 의병에 가담했다. 1910년 애적의 집략 행위를 십대죄목(十大罪目)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군량에게 통고문을 보내려다 체포됐다. 이후 모진 유배 생활을 견디고 1914년 2월 독립군부가 결성되자 특파내외순찰사로 임명돼 활동했다. 그 공을 인정받아 1990년 애국장에 추서됐다. 현재 성송면 학천리에(여림마을) 최전구 선생 의전비가 남아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동학에서부터 고창군의 독립운동사 등을 살펴보면 고창군은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곡성 명물 '기차당뚝방마켓' 16일 여수 바닷가에 뜬다

대만 여행객 맞이 이동장터 초대 곡성군의 대표적인 명물 '기차당뚝방마켓'이 여수를 찾는다. 16일 여수 크루즈 여객선 부두를 통해 입항하는 대만 여행객을 상대로 펼쳐지는 '찾아가는 이동장터'에 곡성 뚝방마켓이 초청됐다. 이동장터는 롯데 JTB가 전남문화관광재단, 여수시, 순천시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크루즈 환영 행사다. 행사 참여 인원은 관광객과 승무원 등을 합해 3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입항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수항 부두에서는 뚝방마켓 외에도 공연, 특산물 판매, 푸드트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총 50여 팀 규모의 마켓을 계획 중인 곡성 기차당뚝방마켓 측은 고객층이 외국 사람만큼 우리나라 고유의 특색과 감성이 담긴 수공예품 위주로 마켓을 열 계획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추석 경안자금 100억원 지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고 2억원 한도로 기존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를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원하는 기업은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토지 5000평 매매

## 지리산 관광온천 지구

- 계획관리지역, 전망풍물
- 답 3300평, 임야 1355평, 전 330평
- 송원리조트(블루센) 옆, 현 상업 나대지 상태
- 지리산 골프장/케이볼카 유치중
- 모든업종 개발가능
- 감정/시세 - 약 30억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